

전남 평균 농가소득 3400만원, 부채는 2700만원

소득 1위 제주와 1169만원 차... 지역별 편차 커 자산은 2억4200만원으로 9개 농도 중 최저

지난해 전남지역 평균 농가소득은 3400여만원이고 부채는 2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자료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해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농가소득은 3385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41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900여만원), 충북(3500여만원), 강원(3400여만원), 경북(3400여

만원), 충남(3200여만원), 전북(3000여만원), 경남(2900여만원) 순이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제주와 가장 적은 경남의 차이가 1169만원으로 40%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농가소득은 제주·경기·충북·강원에 이어 5번째로 많아 9개 농도(農道) 중에서 중간 정도 순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농가부채는 2657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30여만원으로 가

장 많았고, 제주(4520여만원), 경남(3000여만원), 충남(2600여만원), 강원(2200여만원), 전북(2100여만원), 경북(1700여만원), 충북(1400여만원) 순이었다.
부채 역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전남지역 농가부채 역시 농도 중에서 중간 정도 순위였다.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이 부채도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충북과 경북의 경우는 높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농가자산(자본+부채) 기준으로는 전남이 2억4200여만원으로 9개 농도 중 가장 적었다. 지역별 농가자산은 경기도가 8억8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4억1000여만원), 강원(3억7400여만원), 충

남(3억5700여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역별 농가부채와 농가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유하는 농가자산의 영향도 크지만, 이런 지역적 차이를 줄여 전체 농가수준 향상과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농정당국의 정책적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입 급증으로부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가소득을 증가시켜야 농가부채 감소가 가능하므로 농정당국은 지역별 불균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승원 칼럼

읍내에 시장을 보러 나가거나, 광주·순천·목포 등지에 강연을 하러 다닐 때 늘 당연하게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 한때 이번 가을부터 택시를 타지 않고 군내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작정했다.

군내버스를 타고 회진 고향에도 가고, 나의 두 발로 읍내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기로 한 것이다.

두 발로 걸어서 다닌다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살지 않고 천천히 살피며 곰곰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고, 느린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자 뜻밖의 소득이 생겼다.

가령, 내가 가진 읍내 중심의 한 도로를 이차선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걸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차들이 붙는다. 애초에 십년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를 한 그 도로는 조심조심 걸기로 걸어다녀야 하는데, 시름하고 구리직직한 냄새가 밑에서 올라온다. 하수구 냄새이다.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 몰랐을 것을 걸어 다녀보니 그 거리의 냄새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곤 하는 것이 흠일 뿐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미리 나와 기다려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다.

내가 처음 버스를 타려 할 때 아내를 말했다. 자가용이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아내를 말했다. 아내가 말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란 이름 있는 시인이면서 소설가이고, 과거에 베스트셀러를 몇 차례 내서 돈을 얼마쯤 통장에 담아 놓고 살고, 대학교 초빙교수를 십오년 이상 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그만두었고, 마을 사람들이 부자로 알아주고, 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 주는 20만원씩의 기초연금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자가용을 끌고 갈 경우, 천 몇 백만 원짜리의 자동차 값이지는 값, 세금, 보험금, 기름값, 자동차로 인한 지출을 감안할 때, 그 돈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내가 읍내에 다녀와서 아내에게 "나 오늘부터 버스 타고 다니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때 아내의 내색은 달라졌다.

두 발로 걸어다닌다는 것

느린 삶을 산다는 것은 그곳을 깊이 냄새 맡는다는 것, 즉 깨닫는다는 것이니. 다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골에 사는 나에게 가끔 정치인들이 책을 낸 다음 문봉투를 주면서 그 책에 주례사 같은 축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출판기념회장에 나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청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사양을 했다. 대개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직접 책을 쓰지 않고 대필업자들에게 일천 몇 백만 원을 주고 맡겨서 쓰고, 제법 많은 출간 비용을 출판사에 주고 책을 낸 다음 출판기념회를 거창하게 열어 몇 억의 눈 먼 돈을 챙기는 냄새나는 것이므로, 나는 그러한 눈 먼 돈을 받아 택시를 타는데 사용해오지 않았다.

내 토굴에서 택시를 타고 읍내까지 가면 '만 3천원'인데, 군내버스로 가면 안양 읍내 정류소에서 읍내 터미널까지 '천사백오십 원'이다. 버스는 털털거리면서 심하게 흔들리기는 해도 참 시원하게 잘 달려준다.

운전사가 정해진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약간 일찍 정류소를 지나

"안돼, 당신 연금 안받겠다고 끊어 죽을까봐, 그러시오?" 아내가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가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 성성 지나가는 승용차들 속에서 나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들의 눈에 대하여 생각하고, '안쓰러워' 하며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느꼈다.

그렇지만 나는 남들이 보는 눈길에 신경쓰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속물근성인가, 하고 생각했다. 세상의 말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은 낮은데로 임하는 첫 단계인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경운기 엔진을 달고 달리는 채취선을 타고 주꾸미 잡이를 하러 다녀보기로 했고, 갯벌에 들어가서 계를 잡아보기로 했고,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기로 했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실천을 하는 것이다. 느릿느릿 사는 말바닥의 낮은 삶이란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경험하고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소설가>

농촌경제연 "수확기 쌀값 16만7600원 전망"

지난해보다 4.4% 하락

올해 수확기인 10~12월 햅쌀 한 가마니(80kg) 평균가격이 16만7600원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8일 '쌀 관측 11월 수확기 속보'를 통해 "수확기 햅쌀 가격이 지난해 보다 4.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예상생산량 418만 중 예상 수요량 400만이 넘는

초과공급분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쌀값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쌀값은 전년보다 6.0% 떨어진 16만4800원이 되지만, 18만을 사들이면 쌀 공급 가능 물량이 6.8%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4.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확기 평균 쌀값이 17만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변동성 불균이 지급된다"면서 "올해는 변동 지급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낙연 지사, 수출 활로 모색·투자 유치 訪中

이낙연 전남지사가 29일 수출 활로 모색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중국 순방단은 29일부터 4일간 베이징, 상하이에서 관광 개발·풍력발전기 제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와 관광설명회를 열고, 중국 내 유수 기업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상무부 부부장, 상하이 시장 등과의 고위급 회담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가 확대되는 실정을 감안, 투

자 유치, 수출과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방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 일행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베이징, 상하이에서 전남의 유망 수출기업과 중국바이어 간 1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오투커(邀客)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의 메이저급 여행사 등과 관광설명회도 두 차례 개최한다. 전세계 운항 전문여행업체인 중국의 마이투어사와는 무안공항 100회 운항협약도 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풍선날리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입구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11월1일)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에 풍선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세종사무소 내달3일 업무

전남도 세종사무소가 다음달 3일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서울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세종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세종시 도남동 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을 얻어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세종

사무소에는 사무관과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남 세종사무소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 업무를 보며 중앙정부 협의 등을 위해 세종시를 찾는 전남도 직원을 지원하게 된다.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남도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개소와 함께 인원이 6명으로 줄어든다. /윤현석기자 chadol@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25-0093

보청기 구입, 이렇게 하세요!!

- 대한보청기 -

귀에 쏙~

(귀의 보이지 않는 맞춤 귀속형 보청기)
외관모습도 중요합니다

- 01. 본사 직영센터**
- 02. 맞춤렌탈**
- 03. 30개월 장기신용할부**
- 04. 천사 무료·홈 서비스**

- ▶ 시중 대리점 중간 유통 마진 없이 본사 직영가임.
- ▶ 우수한 제품만을 취급 및 장기 보증 기간 혜택. (2~3년)
- ▶ 보장보험으로 도난, 분실, 파손 등 제품 사고시 안심·보상지원.
- ▶ 즉석 A/S, 무상발레리, 무상 청력 검사 및 보청기 관리, 친절 서비스 등 무상 혜택이 다양함.
- ▶ 한달 3~4만원이면 수백만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도 마음대로 쓸수 있음.
- ▶ 보청기 가격 걱정 할 필요 없음.
- ▶ 평생 1회 가입비외의 더 이상 아무 비용이 들어갈 일 없음.
- ▶ (예) 170만원 고급 보청기 ÷ 30개월 = 월 56,666원임.
- ▶ 전국 365일, 전라도, 남해, 강원지역, 등 지방 산골까지도 천사팀 무료 방문.
- ▶ 거동이 불편하신분, 바쁘신 자녀분들을 위한 무료 홈 서비스 임.
- ▶ 매장과 똑같은 시스템으로상담, 청력검사, 맞춤일체를 봉사 해드립니다.

광주직영점

062)430-8900

순천직영점 ☎0611 741-4880

전주직영점 ☎0631 251-4999

전국, 어디서나 365일! 지금 상담중...!!

◆강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창주직영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달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시사본점 051)819-0038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진북(진주)본점 063)251-4999 ◆순천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